



[종합] 천군만마 얻은 조원태 이명희·조현민 지지선언 04



Economy

코스피	↑	2157.90 (+39.02)	코스닥	↑	661.24 (+14.39)
금리 (미국 3년)	↑	1.33 (+0.04)	환율 (원·달러)	↓	1187.40 (-7.60) (4일)

코로나 쇼크 머니무브 금·암호화폐 돈 몰려

신종코로나 확산에 경기부진 우려 전 세계 증시 시총 4700조 증발 암호화폐 등 안전자산 자금이동 급감 트로이온스당 1600달러 압박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지난 10일간 전 세계 증시에서 시가총액 4700조원이 증발했고, 감염증의 중심지인 중국 증시에서는 연휴 동안의 충격이 한 번에 반영되며 470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상승(원화값 하락)했고, 불안한 자금은 금과 비트코인으로 이동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7.6원 하락한 달러당 1187.4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한때 달러당 1200원 선에 근접했지만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세에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내외 증시도 일단은 진정세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0.51% 상승한 2만8399.81을 기록했고,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각각 1% 이상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패닉셀(공황매도)은 멈췄지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낙폭을 되돌리진 못했다.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난 10일간 약 4조달러(4700조원)나 증발했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사스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특히 중국 증시는 춘절 연휴 동안의 충격이 지난 3일 한 번에 반영됐다. 7%가 넘게 급락하면서 중국 증시에서 날아간 시가총액만 470조원이 넘는다.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향했다.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이미 6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국제 금값은 지난달 30일 트로이온스(31.1g)당 1583.50달러까지 치솟으며 1600달러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들쭉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6일 1000만원을 넘어섰으며, 1100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비트코인이 오름세를 탔다.

원·달러 환율은 일단 1200원 돌파도 염두에 뒀다 할 분위기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등이 발병할 당시와 달리 중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고, 국내 경기체력이 견조하지 못한 탓이다.



삼성, AI용 '초고속 D램' 세계 첫 출시

3세대 고대역폭 '플래시볼트' 선택 데이터전달속도 4.2기가비트 확보

삼성전자가 고성능 D램을 필요로 하던 정보기술(IT) 업계 요구에, '세계 최초' 기술로 다시 한 번 응답했다.

삼성전자는 4일 차세대 슈퍼컴퓨터(HPC)와 인공지능(AI) 기반 초고속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초고속 D램인 '플래시볼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플래시볼트는 16기가바이트(GB) 용량의 3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2E)다. 2세대인 '아쿠아볼트'를 출시한 지 2년여 만에 속도와 용량을 각각 1.3배, 2.0배 높이는 데 성공했다. 버퍼 칩 1개에 16기가비트 D램칩 8개를 쌓아 최고용량과 초절전 솔루션도 제시



삼성전자 '플래시볼트'.

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데이터 전달 속도 특성을 초당 4.2기가비트까지 확보해, 특정 분야에서는 538기가바이트를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성능까지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양산을 시작해 최근 가속화하는 인공지능과 고성능 그래픽 시스템 개발 등 고성능 시스템 개

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래시볼트는 '초고집적 TSV 설계 기술'을 적용해 혁신을 이뤄냈다. 16GbD램 칩에 5600개 이상 미세한 구멍을 뚫고, 4만개 이상 TSV 접합홀로 8개 칩을 수직 연결하는 방식이다.

'신호 전송 최적화 회로 설계'도 활용해 1024개 데이터 전달 통로에서 초당 3.2기가비트 속도로 410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 실 최철 부사장은 "역대 최고 성능의 차세대 D램 패키지 출시로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독보적인 사업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iuk@



현대차 울산공장 순차적 휴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공장 일부 라인이 휴업에 들어간 4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차 명촌정문에서 1조 근무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퇴근하고 있다. 현대차 공장은 순차적으로 휴업에 들어가 7일 모든 생산을 중단한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신종코로나' 16번째 확진자 발생

태국 여행한 40대 한국 여성 정부 역학조사 결과 곧 발표

국내에서 16번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태국 여행 후 확진 판정을 받은 43세 한국 여성으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2·3·6·L1·L3면>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번째 환자는 태국 여행 후 지난달 19일 입국했으며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났다. 이달 2일까지 중소병원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3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한 뒤 격리됐고,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중국 이외의 지역을 다녀온 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특히 이 환자는 신종코로나 증세를

나타낸 이후 격리되기 까지 일주일 가량의 시차가 있는 것도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즉각 대응팀이 어디서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를 파악 중"이라며 "태국에서 걸렸다고 하더라도 중국 후베이성의 주민하고의 접촉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는 5일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발생한 확진자들의 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이다. 대다수가 감염 초기에 발견돼 신속한 치료를 받았고 모두 예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2번 환자(55·남)는 증상이 완쾌해 퇴원을 검토 중이다. 이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 달 만에 완료... 소·부·장 상장특례제 '흥행'

특별법 개정에 상장특례 활성화 평가완화, 심사기간도 대폭 단축

소세·부품·장비(소부장)기업의 증시 입성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소부장 특별법 개정이 기업공개(IPO)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산업에 편성된 2조1000억원의 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거래소의 정책이 맞물리며 '소부장 전문기업 상장특례(소부장 패스트트랙)'는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KRX)는 지난해 9월 '소부장 전문기업 상장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소부장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 신청 시 외부 평가기관 단 한 곳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 된다. 2개 기관에서 각각 A, BBB 이상 등급을 확보해야 하는 일반기업보다 크게 완화됐다.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상장예비심사 기간이 기존 45영업일에서 30영업

일로 줄어 들었다. 소부장을 비롯해 핀테크 등 첨단기술 업종의 특례상장 사례 늘리겠다는 공언은 미래가 유망한 신성장 분야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거래소의 의지로 읽힌다.

소부장 기업들은 신바람이 났다.

오는 20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2세대 초전도 선재 제조기업 서남의 문승현 대표이사는 "상장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돼서 좋다. 오랜 기간 기술개발을 한 업체들이 조금씩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선발주자의 선전은 소부장 상장 열기를 끌어 올렸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지난해 최고 경쟁률인 1290대 1을 기록한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 제조기업 메탈라이프가 대표적이다.

메탈라이프는 상장 첫날인 지난해 12월 24일 공모가(1만3000원)보다 160%나 뛰어오른 3만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며 '예고된 흥행'은 깨졌지만 1만7000원을 웃돌고 있다. 전염병 여파가 끝나면 다시 상승이 예상된다.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부장 특례상장의 흥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부장 패스트트랙 제도로 상장을 앞둔 한 기업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상장 선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데 메탈라이프의 흥행이 증시 입성을 고려하는 후발주자를 자극했다"고 했다. 레몬·제이앤티씨·엔에프씨 등 이달 소부장 기업들도 대거 수요예측에 나선다.

증권사도 소부장 기업 발굴에 한창이다. 일반 기업 두 배 수준인 4%대의 높은 수수료를 때문이다. 낮아진 문턱 때문에 더 쉽게 상장시킬 수 있는 데다 상장 예비심사 기간이 대폭 줄며 변수가 많은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다.

/송태화 기자 alvin@